

제 155 호

연중 제 33주일
평신도의 날

1975. 11. 16.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 평신도의 날 ✽

다함께 시성 시복운동에 참여합시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고유한 사명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평신도들의 축일입니다. 특히 금년은 세계교회 안에서 볼 때에 지난 73년 6월 10일 성신강림 대축일에 선포된 하느님의 해 즉 "화해와 새신"을 염원하는 수많은 베드로 대성전 순례자들의 발걸음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성년이며, 우리 한국교회로서는 병인 순교자들의 시복 50주년을 맞는 감회가 깊은 해이기도 하여, 금년의 평신도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현대 세계는 심각하고 빠른 변화를 수반하면서 고도의 물질 문명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풍부한 물질과 능력을 누리면서도 세계인구의 상당수는 아직도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오늘날처럼 자유를 갈망한 때도 없지만, 오늘처럼 자유를 잃고 있는 때도 없습니다. 인간이 오늘날처럼 일치를 갈망한 때도 없지만, 오늘처럼 분열되고 있는 때도 없습니다. 인간이 오늘날처럼 진보를 누리면서도 오일처럼 진보의 피해를 입고 있는 때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지만, 이제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계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복잡한 현실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전도의 생활 속에 신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하느님이 계시하시는 희망과 창조의 아름다움을 현실의 불안과 어두움에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해결의 열쇠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제모습을 잃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생활로써 잃어버렸던 우리의 얼굴, 하느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을, 형제들의 얼굴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형제들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먼저 실천할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신도의 공의회라고도 일컬어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남녀 평신도들에게는 그 진분과 사명상으로 보아 특수한 임무가 있음」(교회헌장 30)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평신도들의 일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직무와 일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평신도들의 특별한 사명은 평신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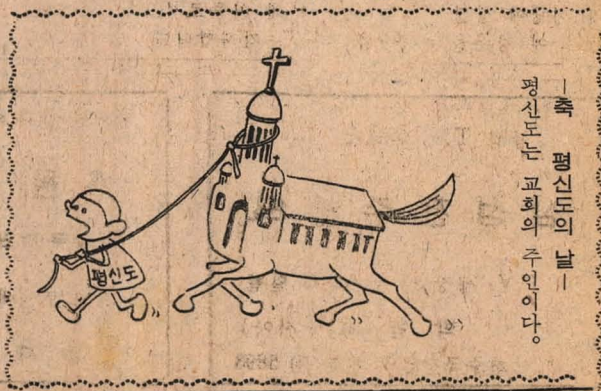
와 환경속에 교회를 현존케 하고 활동케 하는" 그것이며 "모든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구세 계획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빛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성신 안에서 행하며, 생활의 번민을 인내로이 참아 받는다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뜻에 맞는 영적 제물이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평신도의 사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신앙고백을 주저치 않을 때, 이것은 바로 평신도의 예언적입니다. 또한 어떤 분야에서건 사회의 진보를 도모하여 세상을 하느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기에 보다 좋은 밭으로 준비시킬 때, 이것이 바로 평신도의 왕제적입니다. 이처럼 평신도의 직무는 막중하고, 그 은총은 풍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회의 가르침입니다. "평신도 각자는 세상에 대하여 주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가 되어 "주께서 친히 복음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신 청빈의 정신을 가진 사람, 온순한 사람, 평화로 이루는 사람들의 정신을 세상에 전파해야"(교회헌장 38)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세상에 오신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신도의 고유사명은 세속안에 있습니다. 교회안에서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본래의 고유사명은 세속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현대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비추어 보고, 듣고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명이 우리 평신도에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이 자율적으로 교회를 창설하였을뿐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피로써 증거한 전통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과가 아무리 차고 험할지라도 그것에 휘말려 들지않는 용기와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순정이 산책



— 즉 평신도의 날 —
평신도는 교회의 주인이다.

<1면에서 계속>

우리에게 영광은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구원사업의 주역은 우리 평신도들이며, 갈바리아산에서 이루어진 수난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이 바로 사도직임을 다시 한번 명심합니다.

-〈본당 특유 사정〉-

이제 1975년도 평신도 사도직 전국 협의회에서 크게 거론된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첫째, 김대건 신부님을 위시하여 모든 복자들의 시성 촉진 운동과 아직 복자품에 오르지 않은 치명자들의 시복운동을 전개하는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순교선조들의 피흘림으로 머지않아 한국 천주교회는 그 창립 200주년을 맞게 됩니다. 103위의 복자는 있으나 아직껏 성인이 한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일은 우리 후손들의 못난 탓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열성부족이 그 큰 원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사회복음화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회 출판물 보급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는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의 교리교육은 영세준비 때나, 주일학교의 교리반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정신의 양식을 제공하는 교회출판물들이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우리를 부르고 있으나, 우리는 완강하게 귀를 막아 버립니다. 재미가 없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가면서 이 사업에 협조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기관지인 경향잡지와 유일무이한 교회 주간지 가톨릭시보를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각 교구 평협을 통해서, 본당 단위의 평신도 활동단체를 통해서 벌이고 있는 이 사업에 적극 호응합니다.

셋째, 평신도 사도직 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일입니다. 본당 단위의 단체들이 교구 평협을 이루고, 교구 평협이 전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조직체인 평협의 움직임을 잘 보살피시고 체제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걷는 헌금은, 한번을 걷던 두번을 걷던간에, 이를 모두 모아 그 3분의1은 본당 평신도 운동에, 3분의1은 교구 평협이, 나머지 3분의1은 전국 평협 기금으로 쓰기로 몇해전에 주교회와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떠한 형태의 평신도 사도직이건 주교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수도자와의 일치미를 이룰 때에 그 열매는 더 크고 달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합니다.

이렇게 강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신 본당 산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앞날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다짐하면서, 주 성모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의 하는 일에 머무르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강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기도서 p 477

(1) **개회식**

□**일당송** 나는 재앙을 내리려 하지 않고 평화를 주려 하노라. 나를 부르라.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로 잡힌 너희를 도처에서 불러들이리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잠언 31:10-13, 19-20, 30-31)
제 손으로 일하였다.

□**응계송**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되도다. 복되어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그 도를 따는 자는/수교의 열매를 먹고 살리니/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

□**제2독서** (데살로니카 전서 5:1-6절 성서 p469)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닥쳐오지 않기를.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거라 나도 너희안에 있으리니 내 안에 머무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5:14-30 성서 p 61)

적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을 나누어라.

□**신자들의 기도**

1.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여,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총안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토록 교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핏줄을 이어받은 집안에서도 서로의 각자의 말은 바 책임이 다르듯이 한 교회를 이룬 당신의 백성 모두에게도 자기의 말은 바 생활 태두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고 그러므로 행동에 옮기어 말은 바 평신도 활동에 힘을 기울이어 평화스러운 당신나라 건설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은총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주여, 주여”하는 자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읍니다. 우리 평신도들로 하여금 말과 행동으로 남의 모범으로써 진정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은총주소서. ◎

3. 사랑하는 당신 백성의 무리인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여! 부정, 부패, 부조리, 불의, 이 모두 당신은 조금도 원치 않사오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답답함, 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오직 당신만이 구원의 빛이시며 희망이시니 우리 모든이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어 당신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이 이 사회안에 이룩되게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

4. 구원의 빛이신 주여! 우리보다 먼저 간 형제들에게 당신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야훼님 곁에 있는 것이 내게는 행복, 이 몸 들 곳 야훼님이다.

삼성 T.V 대리점

삼성전주센터

T.V, 생장교, 전기용품 일점

박영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⑤ 5898

서울 인류기술자 초빙 개업

A 원 양 복 점

교우 여러분에게는 인하 봉사

정읍 군청에서 성림극장 쪽으로

전화 998

황재평 (베드루)

흑백칼라, DP.E, 고급 인상

현대 사진관

주 김요한(낙준)

김테레사

전화 ⑤ 2589

주소;교사동 2가 역전오거리

□양 지 쪽□



평신도의 자세

범 석 규 신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교회구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평신도는 당연히 교회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책임이 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도들의 기본적 자세의 탈바꿈이 있어야겠다. 이것은 비단 평신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마찬가지로 마땅하게 적용되어야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평신도의 측면에서만 말하고자 한다.

1. 소극적 종속적 자세에서 적극적 능동적 자세로 : 교회참여에 있어서 성직자의 지시나 종용이 없으면 아예 움직이지 않는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고쳐야겠다.
2. 소외적 종속적 관념에서 주체적 자주적 관념으로 : 평신도는 성직위계에서 소외된 것처럼 생각하거나 성직자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의식하는 관념에서 교회 안의 주체됨을 깨닫고 자주적인 입장을 찾아야겠다.
3. 율법주의적 수계사상에서 생동하는 생활태도로 : 교회에서 지시하는 법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사랑의 큰 법 테두리 안에서 여유있고 활발한 생활태도로 옮겨야 하겠다.
4. 무사안일과 안전 제일주의에서 창조적 전진자세로 : 교회는 만사를 무사안일과 안전본위로만 해서 용단과 박력이 부족하다. 비록 약간의 시행착오를 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창조정신으로 전진자세를 취해야겠다.
5.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 신도들이 자기구명에만 급급했으나 교회 전체 사회전체의 공동체적 구원을 추구해야겠다.
6. 획일주의적 폐쇄성에서 다원적 개방성으로 :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이다"라는 사상에 집착한 나머지 획일주의로 흘러가고 따라서 우리만이 제일이란 폐쇄적 풍토를 버리고 오늘의 사회가 다원적이고 개방사회임에 적응하며 좀더 폭넓은 마음의 문을 개방해야겠다.
7. 방관적 무책임성에서 자율적 책임성으로 : 신도들이 교회 모든 일을 자기들의 일로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겠다.
8. 유아독존적 배타사상에서 포용적 보편사상으로 : 신도들은 넓은 마음과 사랑의 눈으로 다른 종파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여유있는 대화의 길을 터놓아야겠다.
9. 공로주의사상에서 사명의식으로 : 복음전파나 자선사업을 공로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우리의 사고 방식을 고쳐야 되겠다.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지도 신부)

오십이 (12) 리병오



□ 신간 안내 □

구상 문학선
구상 저 2,000원
성 바오로 서원 (T 7398)

* 축 평신도의 날 *

1. 김대건 신부님과 복자들의 시성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2. 교회 출판물, 경향잡지, 가톨릭시보 구독에 적극 호응합시다.
3. 평신도 사도직 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합시다.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역 중앙 시장동
(전화 4577)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삼성전주센터 앞
전화 6219

금성, 삼성, 대한, 동남사
TV, 냉장고, 세탁기 등

綜合電子

●팔달로변(舊 광주지행 앞)
김종환(원선시오) 전화2-3332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먼저 가신 부모, 형제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시다

1. 오지리 부인회 장학생 선발 대상자: ①농과, 공과, 실업고등 전문학교 재학증명서 2통 ②가정 환경조사서 2통 ③사진 3×7cm 2매 지금까지 보조학생은 75년도로 마감하며 자세한 것은 주임 신부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농과, 공과는 고등학생으로 2학년 이하에 한하며,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일반대학 제외>
구비 서류를 갖추신 분은 11월 28일이 등록 마감이니 28일까지 등록 신청 바랍니다.
 2. 전주지구 <4지구> 중, 고 학생 회장단 회의: 75년 11월 16일 오후 3시 전동성당 사제관에서
 3. 조국을 위한 필요 기도회: 75년 11월 17일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에서 신, 구교 합동인 조국을 위한 필요 기도회에 많은 분의 참석 바랍니다.
 4. 전주교구 올드레아: 75년 11월 23일 <월> 오전 10시반. 가톨릭센터 강당에서 꾸르실티스타 형제들 참석 바람
-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
5번째 맞이하는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각자 능동적이며 열정적인 활동으로 사제이시요, 예언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평신도의 날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②3874 보좌 신부 김 준 용
사도 회장 이 상 준

1. 76년도 교무금 신입을 11월 25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를!
 2. 성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미사 성제로 연옥 영혼을 도와줍니다.
 4. 금주 마당공사에 협조해 주신 분: 진광술 500원
- ※전화번호 변경 안내
<분당 신부님 사무실> 구 ②2651 신 ③3651
<분당 사무실> 구 ②3874 신 ③3874
<신용 협동 조합> 구 ②9195 신 ③5195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10시 미사 후 (특별헌금 있음)
 2. 고신부님 어머니 1주년 추도미사: 17일 저녁 7시미사 사도회입원, 각구역 신심단체 교우님의 많은 참석 바람
 3. 오늘 강론은 사도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4. 새 성당 의자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주계: 83,500원 누계: 682,330원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주계: 4,181,627원
- ◎신축성미: 5되, 누계: 234.3되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판공성사 할고 준비 교리: 매주 <토> 저녁미사 후
2. 예비자 교리수 녀님 지도 매주 공식미사 후 본당 회의실
3. 학생 교리 신부님 지도: 매주 <토> 오후 5시 중, 고등 학생 전원 참석 바람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4. 성탄 준비 성가: 매주 <수> 청년성가대 연습 특별성가집 발행 되었음 <정가: 150원> 각 교우 가정마다 1권씩 준비하시기 바람
 5. 오늘은 평신도 강론 있음
1.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께 문의 바람
2. 유아 세례: 11월 22일 <토> 오후 4시
3. 반 회합
11월 18일 <수> 제 7반 홍영선 반장례
19일 <화> 제 8반 장영자 "
20일 <목> 제 9반 정옥규 "
21일 <금> 제 10반 김화영 "

(서학동)

전화 ③ 2276 주임 신부 김 명 일
사도 회장 박 장 준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위원장 부위원장 구역 회장님, 참사, 교문 전원 참석 바람
2. <25일>내어두리 <26일 오전>석장리 <26일 오후>와 두리 <28일 오전>의암리 <28일 오후>마치리
3. 꼬미씨움 회합: 오늘 오후 1시 반 전동에서
4. 신용조합 미사회: 다음 주
5. 학생회 「목주」원고 모집: 1차 16일, 2차 23일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한 불 섭
사도 회장 양 윤 모

1. 꼬미씨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 반
2. 주일학교 운동회: 오늘 9시
3. 중, 고등 학생 성가 경연 대회: 11월 23일 오후 1시 단체 출연 바람
4. 등, 반 가정 미사 <금주>: 동원산동, 서원산동, 저녁미사는 수, 토요일만 본당에서 있음.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부수 신배인영	학생회 회합	3,66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프란 치스꼬 형제회	50,000원
		축 애령회 재 성소풍	21,375원			신용조합 월례회	41,865원
제 2 지구	대 윤명중합	누갈다 회의	5,260원	제 4 지구	중 앙동 덕 부 전 학 동	성모회 월례회	54,987원
		학생 회의	2,450원			애령회 간부 월례회	21,520원
제 3 지구	고 금여	성모회	3,520원	제 5 지구	무 주 장 진 안 남 순 임	성탄 준비 성가 연습	19,255원
		주교 합동	13,236원			주일학교 교리 교사 모집	18,875원
		사도회	3,870원	제 6 지구	주 계 안 원 창 실	사도회 월례회	12,405원
		자신 20일 전 연락	35,105원			꼬미씨움 월례회	69,176원
		전례 위원회	20,750원			교무금 헌납은 헌납 봉투 사용	5,145원
		사도회 교리 교육	12,875원			예비자 교리	5,840원
		대의원회	12,875원			신용조합 월례회	9,785원
						황금의 궁전 프레시디움	4,030원
		서울 이향자 명단 보고요망	5,600원				
		J O C 피정	10,410원				